

디펜딩 챔프 호랑이 '잔인한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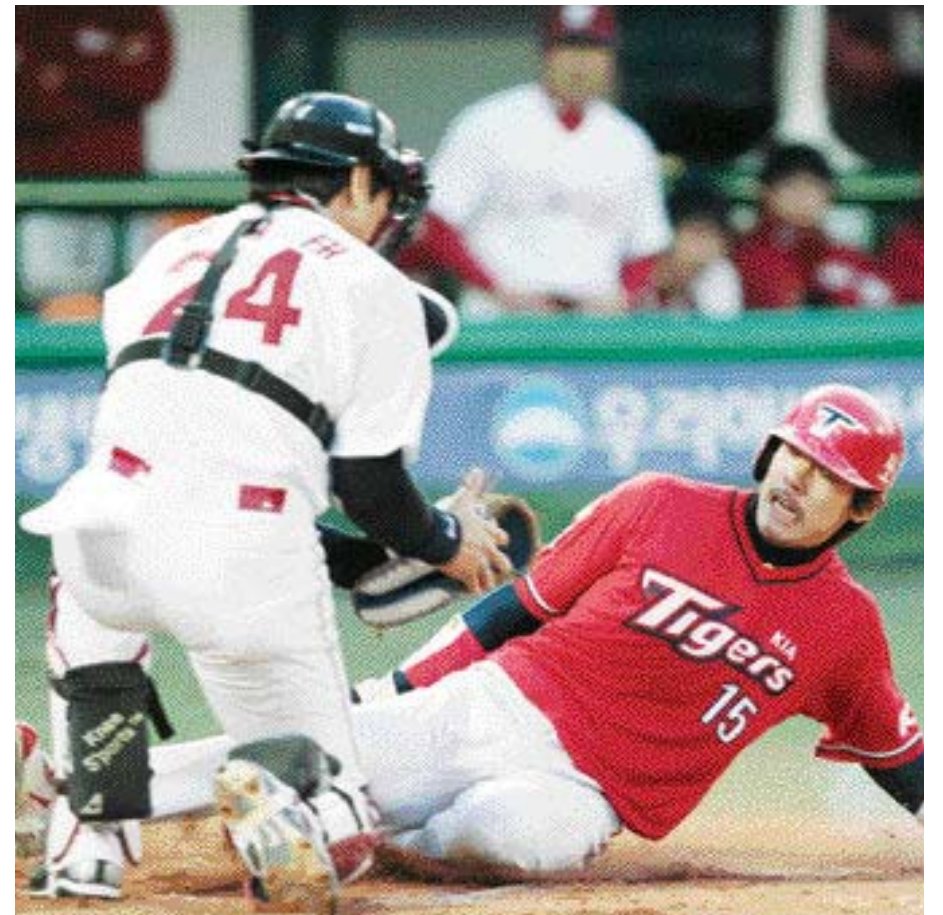
투·타 부조화속에 김상현·라이트 등 잇단 부상병 속출
득점찬스 마다 병살타에 수비 실책까지... 조범현호 위기

과속운행을 했던 조범현호가 '부상과 부진'으로 위기를 맞았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목동경기에서 앞서 3명의 엔트리를 교체 했다. 용병 투수 라이트와 내야수 김상현 그리고 홍세안이 2군으로 내려갔다. 그 빈자리에는 멀티플레이어 최용규, 외야수 채종범, 포수 백용환이 자리했다. 앞선 2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5회를 버티지 못하고 강판됐던 라이트는 24일 연습을 하다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새 용병의 가세로 흔들리던 선발 로테이션이 겨우 완성되는 듯 했지만 라이트는 두 경기에서 불안한 제구를 노출한 뒤 재활군이 됐다. 김상현은 문제가 됐던 왼쪽 무릎에 발목 잡혔다. 전지훈련에서 무릎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던 김상현은 어려운 팀 상황 탓에 공·수에서 강행군을 해오다가 결국 허리에 까지 무리가 오고 말았다. 정상적인 스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김상현은 라이트와 함께 2군행 짐을

썼다. 김상현은 개막 이후 24일 경기까지 5개의 홈런으로 18타점을 기록하면서 팀내 최다 타점 자리에 올랐지만, 부상에 신음하면서 5개의 병살타와 0.193의 타율을 남겨놓고 재활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타선과 마운드, 선발과 불펜의 잇박자 속에 좀처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라이트와 해결사 김상현까지 전력의 인물이 되면서 KIA는 잔인한 4월을 나고 있다. 대규모 엔트리 변동이 있던 25일 조범현

감독은 최용규를 2번 타자점 중견수로 채종범을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시켰다. 분위기 반전 카드로 출격한 최용규와 채종범은 3타석에 나와 1안타, 볼넷 하나를 골라냈지만 '침묵의 타선'은 여전했다. 기회마다 아쉬운 플레이가 속출했다. 병살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KIA는 25일에도 병살타 4개를 추가했다. 집중력 부재의 타격으로 연달아 찾아온 추가득점 기회를 놓치는 등 KIA는 최하위 넥센과의 주말 경기에서 최악의 플레이를 선보이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겼다. 강팀들과의 대결이 이어진 4월 과속운행을 감행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물에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까지 겹치면서 출범 한 달도 못돼 제 2기 조범현호가 침몰 위기에 직면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5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대 넥센 경기. 6회초 KIA 공격 1사 1.3루 김선빈 땅볼 때 3루수자 이용규가 포수 강귀태에게 홈에서 태그아웃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제6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에서 230여명의 회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티오프 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함평=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 CC 회원의 날
230명 친목·화합의 '굿샷'

5대 클럽챔피언에 김승일

사계절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 CC가 개장 6주년을 맞아 제6회 불우이웃돕기 회원의 날 친선골프대회 및 제5회 클럽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예선을 거쳐 24, 25일 본선 2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 클럽챔피언 선발대회에서 김승일(이연광 대표) 회원이 3라운드 합계 231타(1R 77, 2R 74, 3R 80)를 기록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준우승은 합계 235타(1R 80, 2R 74, 3R 81)를 친 정동혁(자영업)이 차지했다. 한편 25일 27홀 3개 코스에서 신페리오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는 55개팀 230명의 회원이 참석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임페리얼 코스에서는 총 77타(네트스코어 69.8타)를 기록한 김영휘 회원이, 마

제스티 코스에서는 박광균(총 80타·네트스코어 69.2타) 회원 그리고 펠리스 코스에서는 전인호(총 83타·네트스코어 69.8타) 회원이 각각 우승했다. 또 통합코스 메달리스트는 67타로 최저타를 기록한 최용수 회원에게 돌아갔다. 여성회원 우승은 고영애(총 83타·네트스코어 73.4타)씨가 차지했다. 또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에서 시상한 함평다이내스티 굿메너상은 주원갑 회원이 받았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이날 회원들이 운동 중 갈등을 달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제공했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클럽하우스 1층 테라스와 2층 단체실에서 뷔페식과 생맥주를 곁들인 만찬을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이날 대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골프우산과 골프공을 선물했다. /서승일기자 swseo@kwangju.co.kr

노승열, 막판 스퍼트 4타 줄였지만...



25일 제주 서귀포시 링크스골프장에서 열린 유럽-한국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날 3타를 줄이며 3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쳐 강호들을 따돌리고 우승한 무명 마커스 프레이저(호주)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렌타인챔피언십 4위... 무명 프레이저 우승

무명 마커스 프레이저(호주)가 유럽-한국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프레이저는 25일 제주 서귀포시 링크스골프장(파72·73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3타를 줄이며 3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쳐 강호들을 따돌리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2002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프레이저는 2003년 유럽투어 BMW러시아오픈 을 제패했지만 이후 7년 동안 우승이 없었고 세계랭킹은 232위에 불과해 웬만한 골프팬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무명 선수. 프레이저는 상금 36만6660유로(약 5억3900만원)를 받았다. 개러스 메이빈(북아일랜드)과 에니 엘스(남아공)가 추격했지만 프레이저는 3라운드 내내 선두를 내주지 않는 안정된 경기를 펼쳤다. 메이빈은 8언더파 208타로 브렛 럽포드(호주)와 함께 공동 2위에 그쳤고 엘스는 5언더파 211타를 쳐 공동 11위로 떨어졌다.

단독 선두로 시작한 프레이저는 전반에 버디 2개를 잡아내며 흔들리지 않았고 추격하던 메이빈과 엘스는 후반에 들어가면서 무너졌다. 특히 엘스는 전반에 버디 3개를 낚아 프레이저에 1타차로 다가가지도 했지만 후반에 보기 2개, 더블 보기 1개를 적어내며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다. 한국프로골프 선수 가운데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이 마지막날 4타를 줄이며 합계 7언더파 209타로 올리버 피셔(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라 체면을 세웠다. 상금 9만3639유로를 받은 노승열은 아시아투어와 한국프로골프에서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전날 공동 5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든 오태근(34·캘러웨이)은 무려 9타를 잃고 공동 48위(2오버파 218타)로 떨어졌다. 강경남(27·삼화저축은행)과 김대현(22·하이트)은 공동 14위(4언더파 212타), 김경태(24·신한금융)는 공동 16위(3언더파 213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최경주 하위권 추락

PGA투어 취리히클래식 3R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620만달러· 68억여원) 3라운드에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최경주는 25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인근 에이번데일의 루이지애나TPC(파72·7341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11번홀까지 버디 2개에 더블보기 1개와 보기 3개를 곁들여 3타를 잃었다. 선두인 제이슨 본(12언더파·미국)에 11타 뒤진 1언더파를 기록 중인 최경주는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62위로 추락했다. 위창수(38)는 13번홀까지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줄이면서 선두에 8타 뒤진 4언더파로 공동 3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오서 "내게 1순위는 무조건 연아 뿐"

아사다 코치 소문 부인

"내게 1순위는 무조건 김연아입니다. 아사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를 키워낸 브라이언 오서(49·캐나다) 코치가 '김연아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20·일본)의 코치를 맡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오서 코치는 25일(한국시각) "아사다의 코치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서 코치는 지난달 토리노에서 열린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아사다의 코치를 맡

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아사다의 매니저먼트사인 IMG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공식적인 요청도 아니었고, 단 한 번 뿐이었다. 이후 전혀 진척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오서 코치는 "내게 1순위는 무조건 김연아다. 김연아가 선수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프로로 전향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수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계속 김연아의 코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사다에게는 지금 그녀의 코치가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김연아의 코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세돌 비씨카드배 우승 1승 남았다

결승대국 칭하오에 2연승

'헨들' 이세돌 9단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비씨카드배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겼다. 이세돌은 25일 서울 성동구 흥익동 바독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결승5번기 제2국에서 중국의 칭하오 9단을 맞아 백으로 146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전날 1국에서 완승을 거뒀던 이세돌

은 이날도 장기인 현란한 변신술을 선보였다. 이번엔 많은 실리를 빼앗겨 초반에는 불리했지만 우하구에서 패를 절여가며 국면을 혼전으로 몰고갔다. 단단해 보이던 중앙 대마를 패로 공격해오자 당황한 칭하오는 단순한 연결에 불과한 작은 패를 썼고 이 실수가 곧 승패와 연결됐다. 우승상금 3억원의 향방이 걸린 결승3국은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